‘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검거

경찰, 15일만에 … 범행장소 200m 떨어진 곳서 붙잡아

“빈집에서 라면만 먹었다” 부인

중학교 입학을 기다리던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 끔찍하게 살해한 김길태(33)가 범행 1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은 검거된 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냉혹한 모습을 보였다.

◇범행 장소 인근서 은신하다 붙잡혀=김은 10일 오후 2시50분께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덕포시장 인근에 은신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이 붙잡힌 곳은 사건 현장인 덕포동 재개발지역과 불과 200~3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김은 삼락동 모 빌라 옥상에 있던중 경찰의 수색이 좁혀오자 건물벽을 타고 달아났으나 순찰에 나선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형사 4명에게 붙잡혔다. 김은 검거 과정에서 완강히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이 길목을 모두 차단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은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상구 일대에서 줄곧 거주했다는 점을 토대로 2천100여명을 동원해 저인망식 수사에 나선 경찰에 꼬리가 밟혔다.

그동안 김이 멀리 가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했던 범죄 심리·행동 분석 요원인 ‘프로파일러(Profiler)’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이다. 그러나 검거 장소가 범행 현장 인근이라는 점은 초동수사 부실을 방증하는 셈이어서 경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은 지난 1997년 A양(사건 당시 9세)에 대한 성폭행 미수 범행과 2001년 B(여·32)씨 10일간 감금 성폭행, 지난 1월 30대 여성 성폭행 등을 모두 덕포동에서 저질렀다.

◇범행 부인…“빈집서 라면만 먹었다”=김은 검거 직후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또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빈집에서 라면만 끓여먹고 있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은 수배전단에서 처럼 회색 후드티와 검은색 점퍼차림을 했으며, 검거 후 시종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의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은 지난달 24일 사상구 덕포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이모(13)양을 50여m 떨어진 빈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살해, 시신을 물탱크 안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 입학 예정자인 이양은 사건 당일 오후 7시께 덕포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홍모(38)씨와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이양은 실종 11일 만인 지난 6일 밤 9시25분께 자신의 집에서 40m 가량 떨어진 주택의 물탱크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물탱크는 높이 125㎝, 둘레 275㎝, 폭 88㎝ 크기로, 김은 사체를 숨기기 위해 횟가루와 벽돌, 건축용 타일 등으로 가려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김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및 경위, 여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어떤 처벌 받나=현재까지 김이 받고 있는 혐의는 ‘강간살인’ 또는 ‘강간치사’다. 이양을 성폭행한 이후 고의로 살해했다면 강간살인죄가 적용돼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반면 살해 의사는 없었는데 성폭행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강간치사죄에 해당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김은 ‘특강누범’이 적용돼 무기 또는 20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이 배로 늘어난다. 김은 강간죄로 징역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6월 출소해 누범기간인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결국 김의 형량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10일 오후 수사본부가 차려진 사상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긋지긋’ 텔레마케팅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

광주지법, 고객 피해 첫 인정

텔레마케팅 업체의 광고 전화에 시달린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김진상)는 10일 홍모(41)씨가 S통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S사는 홍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자사의 상품 등을 기존 고객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전화를 하려고 텔레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라며 “홍씨는 통신사의 이 같은 위반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에는 개인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는 물론 고도 정보화된 현대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도 보장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원·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 주고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업체가 과도한 텔레마케팅을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홍씨는 1999년 S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S사가 홍씨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하는 바람에 2003년부터 5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상품 가입 권유전화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정부통신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S사가 이용자 동의없이 고객 96만명의 인적사항을 유출시킨 사실이 들통나면서 3천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광고 전화는 계속됐고 결국 홍씨는 “텔레마케팅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교사가 교장·교감 폭행

영광 한 고등학교서 근무평정 등에 불만

영광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장과 교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영광 모 고교 영어 담당인 박모(45) 교사는 지난달 25일 오전 교무실에서 교감 김모(50)씨에게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박씨는 컴퓨터 자판기로 김 교감의 어깨 등을 때렸으며, 당시 교무실에는 10여명의 동료교사가 있었다.

박씨는 폭행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교장 김모(62)씨에게도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박씨는 자신의 근무평정 등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도 교육청은 박씨가 평소에도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장, 교감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동료 교사, 학부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박씨를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폭행을 당한 교장 김씨 등은 1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교장 김씨는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급자를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가 커지면 학생과 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단 교육청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교사는 10일 오후 병원 치료를 이유로 조퇴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바로잡습니다

광주일보 10일자 6면 ‘전남 장애인협회장 지원금 1억 꿀꺽’ 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중 구속된 사람은 ‘전남장애인협회장’이 아니라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전라남도협회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나운찬 〈8058〉 김종두

광주 운암동 편의점 강도

10일 새벽 5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편의점에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강도가 침입해 혼자 있던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5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는 한편 키 170㎝ 가량에 검은색 점퍼와 운동화, 모자, 마스크를 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수가 실험실서 마약 대량 제조

쌍나팔

○…서울 모 사립대 중국인 교수가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마약을 제조해 판매하려다 경찰에 검거.

○…서울 용산경찰은 10일 학교 실험실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소지한 차모(32)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3일 자신이 근무하는 화학실험실에서 무색무취 마약류인 ‘GHB(일명 물뽕)’ 320g(시가 6천400만원 어치)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2008년 중국 명문대 대학원 화학과를 졸업하고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9월부터 서울의 모 대학 특채교수로 임용된 차씨는 시중에서 사들인 마약원료 물질 등으로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판명.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우리동네엔 몇 명 살까?

신상공개자 광주 20명·전남 31명 … 철저 관리 필요

지난해 ‘조두순 사건’에 이어 10일에는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인 김길태가 검거됨에 따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公憤)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에는 아동 성범죄가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에는 ‘아동 성범죄 신상공개자’가 51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신상공개자’(318명)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구 비중으로 따질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는 ‘신상공개자’가 20명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별로는 북구 7명을 비롯해 서구와 남구가 각각 5명, 광산구 3명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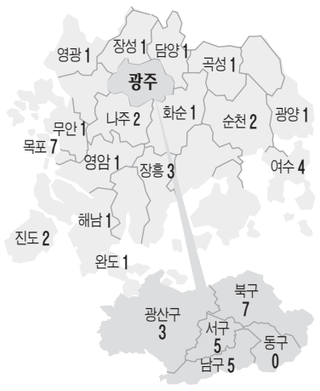
전남에는 31명의 ‘신상공개자’가 살고 있다. 지역별로는 목포 7명을 비롯, ▲여수 4명 ▲장흥 3명 ▲순천 2명 ▲나주 2명 ▲진도 2명 등이다. 광양과 곡성, 담양, 영광, 영암, 완도, 장성, 해남, 화순에도 각각 1명의 ‘신상공개자’가 있다.

전국 시·도별로는 경기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3명, 부산 28명, 경북 22명, 경남 20명, 충남 16명, 인천 15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광주·전남은 아동을 비롯한 전체 성폭행 사건이 매년 6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이 가운데 10% 가량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으로 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전남은 성폭행 사건이 각각 366건, 196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각각 26건, 38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아동성범죄 신상공개자 분포 현황 (단위:명)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 醫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원마디를 위해....
심화과정 개강 3월 2일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
FINAL 예상문제 풀이 개강 7월 5일
특설1 기초시작반 개강: 3월 2일
특설2 기초 영어 개강: 3월 8일
검증된 최고의 강사진의 직접 출강 강의
특별초빙 과목 : 일반생물학
MDPass 醫학원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ass.co.kr (광주 북구청 맞은편)